

國內外 韓國科學技術者

綜合學術大會 盛了

(7月 26日~8月 6日)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會長:金允基)와在美韓國科學技術者協會(會長:卞鍾和)공동주최로 1976년도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가 지난 7월 26일 부터 8월 6일까지 성대히 진행되었다. 經濟企劃院/商工部/文敎部/科學技術處/大韓商工會議所/韓國貿易協會/全國經濟人聯合會/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產學協同財團/大韓航空/이 후원한 이 학술대회는 국내및 재외 한국과학기술자간의 기술정보교환 및 유대를 강화하고, 모국의 과학기술산업의 발전과 연관된 주요과제의 토의및 지식의 교환이 있었으며, 재미한국과학기술자들이 모국의 산업발전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기여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었다.

綜合學術大會 開會式은 26일 KIST 강당에서 600餘名の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및 산업계, 內外貴賓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金允基 학술대회 운영위원회 회장의 開會辭와 崔圭夏 國務總理의 致辭가 있었고, 卞鍾和 재미과학 기술자협회 회장의 人事가 있었다. 이보다 하루 전인 25일 오전 7시 50분 KAL전세기 편으로 재미과학기술자 100명과 그의가족 70명이 도착 하였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비행기 안에서 본 모국의 산과 들의 푸르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開會式 직후 기어올려가는 서쪽 햇살을 받으면서 종합학술대회의 환영 축하연이 KIST 식당과 잔디밭에서 열렸다. 과학기술처장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재미과학회 회장, KIST 소장의 영접을 받으면서 입장, 재미한국과학기술자는 물론 그 가족들과, 산업계, 학계, 정부 등에서 500餘名の 인사들이 참석, 오후 한때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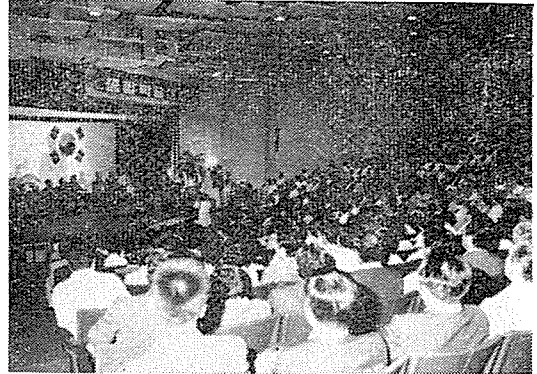


사진 : 종합학술대회 개최식 광경

광영고 악대의 은은한 음률을 들으면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다.

본격적인 學術大會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KIST, KAIS, KORSTIC 강당에서 8개분과에 8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각분과별로 보면 機械및 造船에 4편, 電氣및 電子에 12편, 資源 에너지및 原子力에 13편, 情報産業및 計量科學에 5편, 生命科學및 環境工學에 17편, 金屬 및 材料에 8편, 物理學및 數學 11편, 化學및 化學工學에 10편이 발표되었다. 한 연사의 논문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은 30분이 배정되었다. 짧은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연구한 과제를 간략하게 발표하였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문자는 날카로운 질문을 폈다. 질문자와 발표자의 문답은 한층 학술대회의 진면모를 보여주었다.

學術大會가 진행되는 3일동안在美韓國科學技術者 가족들은 국립묘지를 찾아가 참배하고, 민속촌, 경복궁, 어린이과학관, 국회의사당들을 돌아보며 오랫동안 찾아보는 모국의 그리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또한 3일동안在美側 참가자들

을 위한 리셉션이 국무총리,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싸이엔스클럽 한국엔지니어클럽 주최로 있었다. 이때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못다한 情談이나 인사를 나누면서 모국의 새로운 소식을 기억에 다져가고 있었다.

30일 재미과학기술자들은 연구 및 교육기관의 시찰이 있었다. KIST, KORSTIC, KAIS, 홍릉 기계, 서울대등을 돌아보며 모국에 돌아오게 되면 혹 자기들의 실질적인 생활터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알고싶은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었다. 또한 자기들이 모국에 있었던 시절과 현재상황을 견주어 보고 말로, 글로만 전해 듣고 보았던것 보다 훨씬 능가한 현실에 놀란듯하다.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동안 재미측 참가자와 가족들은 국내주요산업 시설, 포항종합제철/현대자동차/현대조선/울산정유/석유화학지

원공단/동명목재/창원공단금성사/한일합섬/마산수출자유지역/국제화학/구미공단/남해화학/여천공단/대성메타놀/호남정유/한국비료 등 각 산업과 인근 관광지, 충남 아산군과 전남 승주군 새마을등을 돌아 보았다. 이번에 참가한 재미과학기술자중 35명이 미국내 산업계의 중진급 기술자로 종사하고있어 우리나라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6日,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제일큰 과제인(자주국방의 현실) 일선지구 시찰이 있는 다음, 종합토론회가 있었고 승공관 전학, 승공관 주최 리셉션이 있었다.

이것으로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12일동안 계속된 76년도, 서울, 국내의 한국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가 성황리에 폐막되었다.

— 종합토론회의 이모 저모 —

종합토론회는 金允基 운영위원회 회장, 재미측 임원진, 학술발표회 회장, 운영위원회측이 참석하신 가운데 KIST 제 4 회의실에서 종합학술대회의 마지막날(8월 6日) 있었다. 회의의 진행은 8개분과 좌장들의 所見이 있는다음, 운영위원회측의 所見, 회장단의 所見으로 약 2시간동안 계속되었다.

8개분과 좌장들의 所見을 종합해 보면 기계및 조선분과와 전기및 전자분과는, 우리나라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수준급 이상의 논문발표가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자원 에너지 및 원자력 분과에 대하여 재미측 박원춘박사는 「광산, 에너지공업 쪽의 시찰을 못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을 못하게 되어 서운하다. 그러나 모국의 자원개발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자원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듣게 되어 반갑다」고 말했다.

정보산업 및 계량과학 분과에서 김재관 한국표

준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 산업은 산발적으로 발전하여 거족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산업의 80%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의 70%는 개인기업이다. 이러한 중소대지 개인기업에게 하면된다는 능력과 자질을 갖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저변기술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으며,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킬려면 제도적으로 기관을 확립하여 세계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는 기구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번 정보산업과 계량 과학의 학술발표는 이런 의미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금속 및 재료분과의 재미측 임호빈박사는 「국내의 논문은 비교적 폭이 넓었고, 재미측은 너무 좁은폭의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국내측은 좁혀서 재미측은 넓혀서 학술적인 면과 상식적인 면을 동시에 다룰 수 있어야 되겠다」 또한 산업시찰중 「제품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시간에서 시작하여 완성하는 단계가 많았다. 그것은 강철에서 기계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원료에서 제품까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물리학과 수학과 분야의 김영자교수는 「직접 연구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관분석을 할 수 있는 사회과학을 중요시해 주었으면 한다.」

생명과학 및 환경공학의 재미추 차승만 교수는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생명과학분야의 연구가 조금 떨어진 감이 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올 복지 사회를 위해서 생명과학분야에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5년 10년 후에 필요한 보건, 환경관리에 필요한 인력만이라도 계획적으로 개발했으면 한다.」 다음, 재미추 모정자박사는 「20년 동안 서로 연락을 가졌던 모국 교수들의 동향은 알고 있는데, 현재 국내 교수들의 국내 대학원교육은 어떻게 가라앉고 있는지 또한 연구방향은 어떤 것인지 알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재미추 정은형박사는 국내의 생명공학 연구현황을 더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며, 정보교환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참석하는 사람이 많아 주어야겠다.」 「재미추 최형태박사나 차중환박사의 논문발표는 수준이상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하였다.

화학 및 화학공학의 재미추 현진섭박사는 「화학 및 화학공학을 분리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산업시찰이 강행군이었다. 그래서 상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다음에는 각 전공분야별로 집중적인 시찰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문제를 타개해나갔으면 한다」 또한 재미추 신규희박사는 「학술발표는 일반적으로 잘되었다. 다만 전문분야에

과학자와 접촉이 적은 것이 유감이다. 산업시찰 중 발전된 상황을 보니 감탄할 수 밖에 없었다. 아쉬운 것은 선택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할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일반연구기관의 인상은 빨리 발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눈에 띄었다」

좌장의 자격이 아니지만 소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다며 재미추 촉매학을 전공한 임춘수박사는 22년만에 오는 고국의 공기가 개천이 너무도 깨끗했다. 다시 20여년후에 와도 깨끗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산업계에서 와서 인지는 몰라도 산업계에 관심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혹은 회사하고, 학술적인면 기술적인 면을 직접 연락했으면 한다. 그리고 모국의 산업계가 원료를 국산으로 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동 근방에 백토가 많다. 어떠한 원료로서의 가능성 보인다」라고 했다.

운영위원회측에 연세대학교 부총장 안세희박사는 참석인원이 적었던 것을 「부교수급의 초청장 발급으로, 조교수나 대학원 학생은 가서는 안된다」라고 받아 들인 것이며, 방학이 원인이므로 9월 초경에 개최할 수 있으면」하고 「학계의 전반적인 동향은 구체적으로 각학회에 요구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최종완 공업진흥청장은 「제 4차 제 5차 경제개발계획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므로 높은 과학기술의 투입이 요구되는 공업구조로 되어있다 그동안에는 고국의 산업대열에 참여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두뇌와 기술이 필요한 공업구조로 변했으니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다.

백영학 전과기처 진흥국장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맡았던 실무자로서 재미추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산업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회를 조성해 주고, 종사하는 분야에 대한 학문적 발달과정을 들려 주도록



룩 앞으로 계속 정보교환을 해 줄수 있도록 부탁하며, 국내는 각학회가 기술계를 카바하고 있음으로 학회들이 협조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KIST 기술도입센터 박한웅박사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일본의 기술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미국 특히 구리파쪽의 기술현황은 황무지이다. 재미측 참가자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공장사정이나, 기술사정에 대하여 우리가 기술도입을 하기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되겠다. 물론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지만 재미측 창구를 일원화 해 주었으면 한다, 재미측은 혹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지 모르나 이곳 기업인들에게는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는 커다란 문제가 기술이니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했다.

재미과학회 회장인 변중화박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원들이 보고 느낀것은 모국의 산업과 공업의 발전은 매우 팔목할 만한 진보를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종합학술대회는 대회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 하듯이 세분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그룹별 세미나에 더욱 기대해 보도록 해야겠다. 기술도입센터의 기술정보 제공을 한껏 노력하겠다.

재미과학회 부회장 강경식박사는 「앞으로 있을 학술대회가 지금보다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재미측 참가가 많을 수 있도록 항공편의

문제가 해결 되어야 겠다. 국내측 참가가 많도록 포스타등 홍보사항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겠으며, 대학원 학생들 까지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분야별로 연관성 있도록 짜여져 있으면 인원동원에 더욱 협조가 되었지 않았을가 생각해 본다. 참여문제 뿐 아니라, 국내측에서 관심조차도 없는분야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학술대회운영위원회 金允基會長은 「대학원 학생기분으로 논문발표를 들었다. 소감은 이자리에 있는 분들과 똑같이 느꼈다. 다만 학회에 전부 통지했으나 여러가지 여건들로 참가하지못한 학회가 있었다.」 「일선지구 시찰이 있었는데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은 발전해야 되겠다. 북괴보다 과학기술분야가 앞서야 되겠다. 안보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인이 되어 주어야 겠다.」 월간 「과학과 기술」지를 재미과학회 본부로 보내고 있다. 그 내용에 국내 각학회가 발표한 논문이라든지 학회 활동사항이 나오고 있으니 참조해 주기 바란다.」 「과학기술 용어집이 나왔다 53개 분야에 139,000단어가 수록되었다. 재미측 각 지부및 분회에 한권씩 볼 수 있도록 떠나기 전에 전달하겠다」

「12일동안 본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한다」

有備無患精神으로 民防衛隊列에

앞장서서 모든 事態에 處理해 나갑시다.